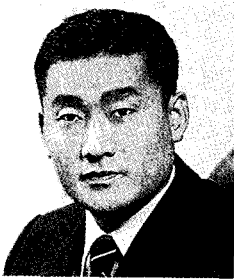


축산업 등록제 등 제도의 활용을 통한 테이터 베이스 구축 필요...



이 재 철
(주)신명 대표이사

육계열화업체를 중심으로 매년 10%이상의 성장을 보이던 양계산업이 최근 1년여동안 극심한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2000년, 2001년도의 호황속에 양계인들의 무차별적인 생산과잉과,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특히 축산물은 수요공급에 대한 탄력도가 타산업보다 크다는 점에서 전자의 원인에 대해서 재고(再考)할 필요가 있다.

1. 업계현황

2002년 육용종계의 입식물량은 국내 적정사육 수수보다 약 70만수 이상이 추가로 입식되어, 2003년 육계초생추 잠재력을 평년대비 30%이상이나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양계산업 성숙기인 여름철 삼복을 보내면서 2002~2003년도 육계 생산원가 이하로 시세가 형성되었으며, 과잉공급으로 인한 산지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산업 불황의 주원인이 되었다.

2. 업계동향

불황의 늪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종계 조기도태, 환우금지, 양계관련 단체의 병아리 랜더링처리, 양계수급안정위원회 주관으로 육계 250만수 수매 비축 등의 극처방의 노력 등을 하고 있지만, 관련업계가 일치단결하여 수급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는 이상 그 효과는 의문시 된다.



3. 불황대처 방안

1) 육용종계의 조속한 감축

국내 소비현황에 맞는 적정수준의 육용종계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단발적으로 실시하는 종계도태를, 업종 관계자 모두가 힘을 합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표1. 육계산업 현황

(단위: 천수)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비고
종계입식수	3,645	4,277	4,793	1,965	03년 6월말
육계생산잠재력	37,741	37,666	44,960	50,429	03년 12월말
1인당 소비량(kg/년)	9.7	10.2	10.3		
수입량(ton/년)	66,334	84,865	97,326	40,351	03년 6월말
도계실적	394,907	442,870	497,313	187,358	03년 5월말

2) 육용종계의 환우금지 강화

종계의 환우는 현 시점의 악순환을 되풀이 하는 동시에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만들 것이며, 악성 질병의 모계 역할을 수행하고, 농장내 질병 발생을 최고조에 이르게 할 수 있다.

3) 소비홍보 강화

정부, 협회, 업체 등 관계자들의 일치단결을 통하여, 국내 닭고기의 소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닭고기는 고단백질,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저칼로리의 1고3저 식품으로 국민의 건강식으로 손색이 없는 화이트 미트이다. 이러한 강점을 충분히 살려 자조금사업을 통한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친다면 앞으로 닭고기 소비는 큰폭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4) 관리기구 활동 강화

병아리 랜더링처리, 육계수매비축 등의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관리기구의 정부차원의 강화가 필요하며, 거시적인 안목으로 업종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5) 사육담 감축(폐기)

각 종계장의 현황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병아리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종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가 따라야 할 것이며, 종계장 스스로도 사육수수 감축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계열업체들은 도계되는 닭들을 수급조절용으로만 냉동하고, 각 도계장 및 계열회사별 사육규모를 기준으로 잉여비율을 산정하여 살아있는 닭들도 랜더링 처리를 주저해서는 안되는 등 닭값을 원가 수준으로 안정화 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6) 품질관리 강화

도계장들은 HACCP를 통해 도계장 품질관리를 철저히하고 병계(전염성질병 ND, IB, 살모넬라등)를 일체 도계하지 말아야 하며, 유명 무실한 항생제 잔류검사, 세균검사(대장균, 살모넬라등)를 대폭 강화하여 최종 생산물인 국산 닭고기가 외국산 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것을 인식 시켜줄 때만이 육계산업은 한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현재 양계산업의 불황은 예견된 일이었다.

그러나 관계자 모두의 안일한 생각과 미시안적인 이익추구 등이 현재의 극심한 어려움을 자초했다고 본다. 따라서 원인만을 추궁하고 있기에는 너무나 급박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나할것 없이 공생의 길을 가는데에 주저함이 없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발적인 고통분담이 선행되어야겠고, 이를 통해 한단계 성숙된 산업구조를 이루어야 한다.

70년대 이후 육계산업의 통합경영체계(integrated system)를 중심으로, 성장위주로 달려온 양계산업은 이제 질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외적으로는 WTO에의한 축산물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었고, 수입 닭고기는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의 점유율이 증가되면서 잠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외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축산업등록제 등 제도의 활용을 통한 데이터 베이스(Data base)구축을 통하여 결정구조 및 유통질서의 확립 등 구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통닭에서 부분육, 가공육으로 이어지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새로운 제품의 개발 등 적극적인 마케팅전략이 필요하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 양계산업은 장기불황, 각종규제신설, 수입개방 등 대외적인 위협요소가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모든 양계인의 화합을 통하여, 한 단계 진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면 생명공학과 더불어 국가기반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양계**